

‘한국의 로트렉’을 아십니까?

〈신체 장애와 싸우다 요절한 佛 인상파 화가〉



‘공작도시 - 난지도 성하’



‘양지’

여수 출신 천재화가 故 손상기 20주기展 국립현대미술관...기념관 추진 등 추모 활발

여수 출신의 천재화가 고 손상기(1949~1988·사진)씨의 작고 20주기를 맞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관련 책이 출간되는 등 추모 사업이 활발하다.

신체의 장애와 가난 속에서 동시대의 풍경을 그리다 요절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볼루즈 로트렉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로트렉’이라고 부른다.

장애(척추만곡증)와 가난에 시달린 손씨는 서울 아현동 월세방에서 1980년대 도시 빈민과 노동자, 달동네 풍경과 신촌 부근 사창가 여인네들을 그려 화단에서 주목받았지만 고향에서는 작품세계를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12월 7일까지 ‘시들지 않는 꽃-손상기 작고 20주기’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손씨가 남긴 1천500여점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임종 직전까지 그린 대표작 100여점이 소개된다.

타이틀인 ‘시들지 않는 꽃’은 작가의 동명의 작품 제목에서 따왔고, “장애를 앓고 있는 나는 이미 시들어버려서 더 이상 시들지 않는다”는 작가의 평소 생각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전시는 크게 4부로 구성된다. ‘제1부 자라지



손상기

않는 나무’에서는 여수 시절 (1969~1981년)에 그린 ‘국화꽃’ ‘수확’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지난 1973년 원광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한 직후 여수항을 배경으로 그린 ‘장날’ ‘양지’ 등도 함께 선보인다.

‘제2부 시들지 않는 꽃’은 1980~1986년까지의 작품인 ‘취녀’ 연작, ‘시들지 않는 꽃’ 연작으로 구성됐다.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아현동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흥등가 여인네들을 모델로 그림을 그렸던 작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또 ‘제3부 공작도시’는 1980년대 초반의 서울 풍경을 다룬 작품을 모았고, ‘제4부 가족, 그리고 고향’에서는 그가 작고 1년 전에 여수항을 보고 그린 ‘비어있는 항구’ 등 말년 작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손상기기념사업회(상임대표 김홍웅·이하 기념사업회)는 손상기 추모 서적 출판

과 손상기 기념관을 여수시에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발간 예정인 ‘고향 바다에 던져진 흰꽃’은 생전 고인을 기억하는 여수 지역 유명인사와 후배 작가들의 회고담 등을 수록한 책이다.

사회사업가인 김홍웅씨, 방송인 오병종씨 등 고향 지인들의 글이 담겼다. 또 고인의 스승인 미술평론가 원동석(전 원광대 교수)씨와 최태만(국민대학교 회화과 교수)씨가 고인의 예술 세계를 집중 조명한 평론도 실었다. 지난해 작고 19주기를 맞아 열렸던 ‘예술혼을 불사른 요절한 화가 손상기’전을 관람한 지역 학생들의 감상문도 곁들여졌다.

기념사업회 박치호 사무국장은 “현재 여수시와 ‘손상기 기념관’ 건립 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면서 “고인의 유족이 유품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혀 기념관이 들어서면 고인의 예술 혼을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 1981년 첫 개인전을 가진 이래 중앙미술, 구상전 등에서 수상했고, ‘문제작가전’, ‘해방40년 민족사전’, ‘30대 기수전’ 등에 참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었던 D,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힘들어하던 과거의 여배우 A와 B가 귀신의 모습으로 분장실에 찾아들면서 이야기는 유머러스하게 전개된다.

원광연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정은희·유지영·고난영·양정인씨 등 광주 대표 여배우의 연기 대결을 보는 재미도 있다. 티켓 가격 일반 1만 5천 원, 청소년 1만원. 연극촌(cafe.daum.net/dream2003) 예매시 20% 할인. 문의 010-3922-47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우회, 배우들 이야기 ‘분장실’ 공연

22~26일 CD아트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배우들은 지난 1995년 ‘여우회’를 결성했다. 친목도 도모하고,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를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무대에 올린 연극은 ‘여덟명의 여자들’, ‘달밤은 이쁘기도 하

서라’, ‘희한한 한쌍’ 등 다채로운 여성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여우회가 자신들과 같은 ‘배우’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린 ‘분장실’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22일~26일 광주 CD아트홀. 일본 작가 시미즈 쿠니오의 작품인

‘분장실’은 ‘무대 인생’을 통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4명의 여배우를 통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극. 분장실의 ‘거울’은 배우들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하는 장치이자, 관객들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연극 ‘갈매기’의 주역급 배우인 C와 O에게 대사를 알려주는 프롬프트

“영성음악 듣고 마음의 안식을”

‘화엄제 2008’ 세계적 영성 음악가들 대거 참여

세계적인 영성 음악가들이 지리산 화엄사에 모여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구례 화엄사가 오는 25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길을 묻다’를 주제로 ‘화엄제 2008’을 연다.

화엄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영성음악가들이 모여 전쟁과 기아, 인종 갈등 등 세계의 갈등과 모순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마련된 국제 영성음악제다.

영성음악은 인간이 지닌 치유력을 일깨워 물질문명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에고(EGO)의 자장기’ ‘영혼의기상곡’으로도 불린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낸 이번 음악제에서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배경으로 불교의 염불과 이슬람의 코란, 한국 전통 국의 소리, 힌두교의 리듬 등이 어우러진다.

이번 화엄제에는 터키의 전통악기인 네이 연주자이자 터키 콘야시의 시립전통음악단장인 사드레민 외즈치미, 600페이지가 넘는 코란을 암송하는 터키 전통악기연주자 아흐메트 샤희 등이 참가한다. 이와함께 어려서부터 영적 수련을 하고 인도의 전통 타악기인 탈라 연주자 마니쉬 비아스, 켈트족의 전통 영성 음악을 하는



지난해 10월 화엄사에서 열린 ‘제2회 화엄제’의 공연 모습. (화엄사 제공)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바 탄마요 등 세계적인 영성음악가들도 참여해 자리를 빛낸다.

또한 국내 음악인으로는 동해안 별신굿 이수자 김동인, 남도 잡가 예능보유이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인 강송대, 화엄제 음악감독 원일, 여창가곡(女唱歌曲) 이수자 강권순, 영화 및 뮤지컬 연주자 정재일, 한국노래운동 1세대 가수로 꼽히는 박치음, 창작음악가 그룹 ‘바람꽃’이 무대에 선다.

화엄사 박인배 사회과장은 “화엄제는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나라, 인종, 종교, 사고의 사람들

이 모여 소통의 가능성을 가능하게 공감하는 자리”라며 “노고단 정상과 붉게 물든 단풍들을 보며 세계적인 음악가가 들려주는 영성음악을 들으면 감동을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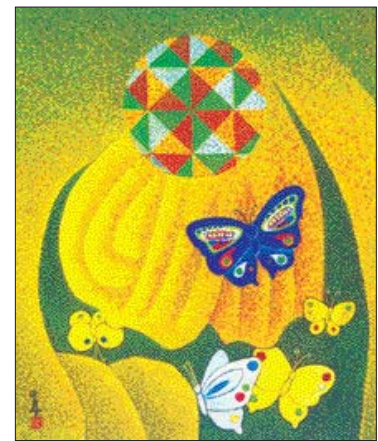
한편 구례군은 이번 음악제 부대행사로 다음달 15일까지 화엄사 보제루에서 구례를 대표하는 사진 30점을 전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엄제 홈페이지(www.hwaom.org)를 통해 알 수 있다. 문의 061-782-760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화려한 색채’ 황길연 동양화 개인전

29일까지 자리아트 갤러리



‘나비의 꿈’

오방색의 화려한 색채를 선보이고 있는 황길연씨가 23~29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자리아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황씨는 작은 점들을 찍어서 대상을 표현하는 서양화 기법인 점묘법을 접목시킨 개성 넘치는 동양화를 선보이고 있는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서 황씨는 한옥, 상호

지, 원앙, 초가집, 등산 등을 단순화시킨 신작을 전시한다.

황씨는 대구 계명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입선했고 광주비엔날레 기념 초대전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청년 점묘법을 접목시킨 개성 넘치는 동양화 연구회 회원, 광주미술관회 회원, 월정 한국화 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

늘숨가야금중주단 정기연주회

22일 빛고를 국악전수관



늘숨가야금중주단이 자신들의 역량을 담은 두번째 정기연주회를 마련했다. 22일 오후 7시 빛고를 국악전수관.

전남대 국악과 선후배 사이인 박주연·이보미·김지혜·임영대씨 등 4명의 젊은 연주자들이 구성한 늘숨 가야금중주단은 이번 연주회에서 ‘민요처럼’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민요를 25현 가야금으로 편곡한 작품을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가야금협주곡 ‘햇노래’, ‘아리랑 변주곡’, ‘한오백년 주제에 의한 변주곡’, ‘25현 가야금 3중주 오봉산 타령’, ‘가야금 4중주 울산아가씨’ 등이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이엔리시아 (www.iendia.com) - 상동권 판매, 출판사, 각종 모임 및 행사 100석, 50평~200평. 062)671-1199

등대바다 - 2008년 주제를 위한 변주곡, 25현 가야금 3중주 오봉산 타령. 062-350-4556